

나약한 지식인의 초상

박양호의 「지방대학교수」

박양호의 「지방대학교수」는 여러 편의 단편을 한편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내용 전개상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지방대학교수」는 작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지방대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쓴 7편의 단편을 시리즈로 묶었고, 「떨어지는 새」 「월하도」 「누가 이 사람을」 등은 6·25에 관련된 일들을 작품화한 것이며, 그밖의 작품들은 생활주변의 여러가지 소재를 소설화한 것들이다. 이 세 부분의 작품들 중에서 작가의 의도나 고민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은 「지방대학교수」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에 나타난 작가의 가장 큰 갈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사유와 행동이다. 오늘날 대학의 모습은 사회현실에 대한 개혁의 외침으로 대변된다. 학생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 위에서 사회현실의 제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전개한다. 이러한 때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교수들은, 지식인으로서 외치는 내면의 소리와 그에 대립되는 외형적인 상황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며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방황에서의 도피 수단으로 술을 찾게 된다. 그러나 술은 일시적인 도피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창백한 인텔리, 회색분자, 교수는 죽었다고 비난하는 소리에 반박하지 못한다.

“돈 보고 교수합니까? 학문의 즐거움과 보람이지요. 것도 다 옛날 얘깁니다. 학생들이 너희들도 교수냐고 데모 때면 야자트고, 돌맹이 던지고, 그러는 판에 무슨 명예가 있겠읍니

까. …… 죽자니 인생이고 살자니 청춘이라, 이 한잔 술에 시름을 …… 우리는 교수에게 배운 거 없다, 교수는 죽었다는 벽보가 나붙는 판이니 이게 어디 술 안먹고 배길 수가 있는 일인가 말입니다.”

위의 대화를 통해 그 속사정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 한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이 역사적 흐름의 선상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 흐름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나약한 지식인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참된 지식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실천을 이끌어내는 지성으로써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우유부단하며, 명쾌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다. 작가는 이 중간적인 위치에 서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지방대학교수」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허구이기에 그 소재면에서 너무 현실에 가까운 것을 다루면 상상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설이 허구라는 것은 있을법한 이야기로서의 허구인 것이다. 때문에 그 소재는 사람사는 이야기로서의 현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작품의 전개는 결국 현실에 대한 자기도피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작가는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역사적 기록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지성인으로서의 실천이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임병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20 · 대학생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金周榮의 「천둥소리」

“하루 종일 하늘은 쪽빛이었다.” 작가는 이렇게 천둥소리의 첫 마디를 시작했다. 뒤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 소설은 그가 처음 사용한 ‘쪽빛’이란 단어의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처음 이 책을 대할 땐 그다지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니 길너가 천둥소리를 듣는 순간 순간마다 눈물을 쏟아야 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길너는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한 여성이었다. 참사랑을 아는 여인. 가녀린 풀잎처럼 세상 풍파에 자신의 운명이 내던져진 것을 아는 예견있는 여인이며, 자신의 삶에 순응하며 인내를 아는 지순한 아낙이다. 많은 사내가 그녀를 지나갔고, 그 사내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울터로 남아 있을 사랑스러운 여자 신길너. 그렇다. 이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졌다.

현명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비극적인 삶을 헤쳐 나가는데 열정적이고 현명한 힘을 가진 여인들을 등장시키면서, 8·15에서 6·25까지 약 5년간 우리가 겪어야 했던 갖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 나갔다. 향토빛 짙은 사투리의 풍미스러움과 우리들 할머니가 겪었을 우리의 이야기를 작가는 많은 아픔과 고뇌 속에서 작품화한 것 같다.

사람이 죽고 전장에서 참혹을 당하고 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버티어냈던 강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보통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아쉬웠던 점은 극적인 상황이나 이야기의 급박함이 결여된 듯한 점

이다. 또한 각 지방의 사투리를 적절히 사용하긴 했으나, 독자들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작가의 주제의식, 즉 주제를 향한 변함없는 의지가, 이 작품을 기존의 진부한 소설을 대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아름다운 많은 작가들이 6·25와 분단 그리고 이념의 대립에 관한 소설을 써왔으나, 김주영 씨의 이번 작품은 이미 도식화되어버린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 역력히 드러난 작품이었다.

천둥 소리가 들리면 쪽을 진 길너의 애뜻한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조수화

서울 구로구 독산4동 197-2호 · 대학생

결혼·행복·죽음

알베르 까뮈 수상록 · 단편
알베르 까뮈 著 / 이규현 譯

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였던 A. 까뮈의 첫 수상록으로 프랑스 문학의 3대美文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작품.

- 제1부 · 까뮈 수상록 — 결혼
 - 제2부 · 까뮈 걸작소설 — 행복한 죽음
 - 제3부 · 까뮈 · 사르트르 논쟁
- 값 3,500원

을지출판사 마포구 신수동 445-5
전화 716-0991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안청시 · 최일섭 엮음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관망할 수 없을 만큼 큰 회오리바람에 휩싸였다.”

본서는 전후세대의 역사·의식, 종교관, 문화의식,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매스미디어, 복지의식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정리한 논문서. 국판/230쪽/3,800원

集文堂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234-2227

술만한 편집자가 없을까?

고충해결

783-6051로 전화주십시오.

한사코 출판문화의 일선에서 뛰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편집아카데미’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5개월간 총 220시간에 걸쳐 실습중심의 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프로근성, 신선한 감각, 학구열 등 편집자의 기본을 갖춘 이들은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덜어 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사람으로 키워보십시오.

한국편집아카데미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4 동복BD · 301호
☎ 783-6051 · 785-6319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120 서울 · 서대문구 미군동 142번지

3131-319